

“여행은 새로운 ‘눈’ 갖게 하고 삶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”

정금선 전 수피아여고 교사, '기적의 순례와 여행' 동구아카데미 강연

오지 트래킹 여행가·자유 배낭여행자...75개국 550개 도시 여행 '인도 여행의 한 수' 등 책 편집·출간...“남극 세종기지 가고 싶어”

나이 오십이 되던 지난 2006년, 두 아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자 그는 일을 저질렀다. 엄마로, 아내로, 교사로,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해 스스로 상을 주고 싶었다. '혼자서' 긴 여행을 떠나겠다고 마음 먹었고, 31일 동안 튀르키예, 그리스, 지중해 문명을 둘러보는 일정을 짰다. 엄마의 여행에 아이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고, 남편에게는 공항에서 전화로 통보(?)했다.

정금선(69) 전 수피아여고 교사는 지금 오지·트래킹 여행가, 자유 배낭여행자로 불린다. 또 산타이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'기적의 순례와 여행', '인도 여행의 한 수'를 펴낸 여행작가이기도 하다. 글과 사진은 물론이고 디자인, 편집까지 모두 직접 했다. 그가 가족 여행, 교사 연수, 나홀로 여행 등을 통해 지금까지 다녀온 곳은 75개국 550여 개 도시에 달한다.

정 씨는 지난 13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광주 동구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여행의 기쁨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. '기적의 순례와 여행'

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은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로키 트래킹, 옐로나이프 오로라 여행 등 31일 간에 걸쳐 이뤄진 지난 8월의 여행 이야기에서 출발했다.

“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. 여행은 고생한 나를 토닥토닥해주는 포상이에요. 차에 기름을 넣듯, 삶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소중한 기회죠. 여행을 가기 위해 운동을 하고, 또 여행을 하며 체력 관리를 합니다. 무엇보다 혼자 여행은 특별한 사유의 시작점이자, 명상의 순간이요.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집중하고 즐길 일이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.”

1979년 수피아여고에서 가정 과목 교사로 출발, 2018년 퇴직할 때까지 39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항상 외국으로 떠났다. 2011년부터는 아프리카, 남미, 중미 등 나이가 들면 가기 어려운 곳으로 발길을 돌렸고 특히 인도는 한달 간의 여행 등 모두 6번을 다녀

올 정도로 마음을 끄는 장소였다.

그를 떠나게 만드는 원동력은 호기심과 열린 마인드다. 이 두가지를 장착하면 언어 문제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. 홀로 자유 배낭여행을 하는 그는 여러나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현지 트래킹에 꼭 참여해 소중한 인연도 많이 만났다. 독서는 여행과 함께 그의 삶의 두 축이다. 도시락을 싸 자전거를 타고 중앙 도서관에 도착해 책을 읽는 건 그의 일상이다.

“여행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호기심이 생기고 나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.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지요. 여행은 두 발로 걷는 독서이고, 독서는 앞서서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. 저의 삶은 곧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'겸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,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'는 뜻의 '겸이불루 화이불치(儉而不陋 華而不侈)'가 여행에 대한 제 좌표입니다.”

비용 문제는 그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. 그의 집에는 에어컨이 없다.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1만원을 넘지 않는다. 일상에서 절약하는 삶을 통해 여행비용을 마련한다.

그는 이름 금선(琴仙)의 뜻을 따 다음 카페 '겨문고 선녀'에 자세한 여행 기록을 올리고 있다. 또 판매용 이외에 '겨문고 선녀의 세계 여행 이야기'라는 타이틀로 멕시코, 과테말라, 쿠바, 러시아 등 27개국을 다룬 소장용 여행서도 15권 제작했다.

그가 앞으로 여행하고 싶은 곳은 남극 세종기지다. /김미은 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캐나다 로키 루이스레이크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금선씨. <정금선씨 제공>

오늘의 날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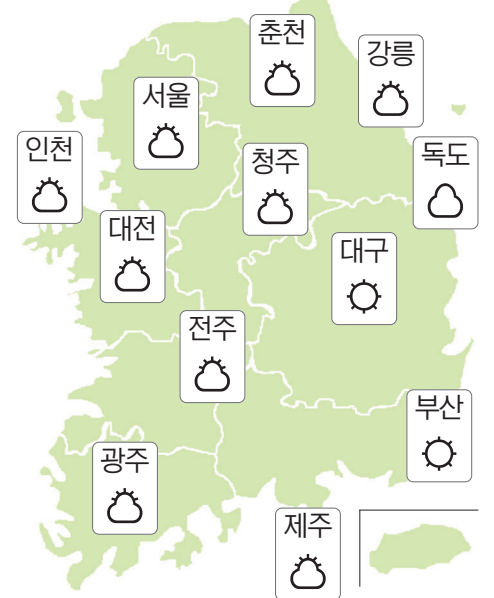
해돋이	07:38	달뜨기	01:13
해질름	17:26	달짐	12:56

크리스마스 이브

당분간 아침기는 영하3도 내외로 춥겠다.

광주	구름많음	-1/7	보성	맑음	-3/7
목포	구름많음	2/7	순천	맑음	-2/10
여수	맑음	1/8	영광	구름많음	-1/6
나주	구름많음	-2/7	진도	구름많음	3/7
완도	구름많음	2/9	전주	구름많음	-4/6
구례	구름많음	-3/8	군산	구름많음	-3/6
강진	맑음	-1/8	남원	구름많음	-5/6
해남	구름많음	0/8	축산도	구름많음	5/8
장성	구름많음	-2/7			

◇전국 날씨



◇바다 날씨

		오전		오후	
		파고 (m)	파고 (m)	파고 (m)	파고 (m)
서해남부	앞바다	0.5~1.5	0.5~1.0		
	면바다(북)	1.0~2.0	0.5~1.5		
	면바다(남)	1.0~2.0	0.5~1.5		
남해서부	앞바다	0.5~1.0	0.5~1.0		
	면바다(서)	1.0~1.5	0.5~1.0		
	면바다(동)	1.0~2.0	0.5~1.5		

◇물때

목포	간조		만조	
	01:33	08:27	13:51	20:36
여수	09:30	03:43	22:06	15:34

◇생활지수

미세먼지	보통
------	----

◇주간 날씨

25(수)	26(목)	27(금)
☁	☁	☁
-1/8	2/7	-2/5
28(토)	29(일)	30(월)
☁	☁	☁
-1/4	-1/7	0/9

김창숙 부띠끄, 광주사랑의열매에 의류 2175점 전달



김창숙 부띠끄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(회장 박철홍)를 통해 광주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의류 2175점을 전달했다. <사진> 지난 19일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성렬 김창숙 부띠끄 총괄이사,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, 이원영 한국노인복지관

협회장 등이 참석했다. 기탁된 물품은 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. 한편, 김창숙 부띠끄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의류 누적기부액이 5억 600여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. /양재희 기자 heestory@kwangju.co.kr

기아 광주공장, 산타원정대 후원금 2000만원 전달식



기아 광주공장(공장장 문제웅)은 지난 19일 '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'을 갖고 후원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. <사진> 후원금 전달식에서 김희준 기아 광주공장 경영지원실장은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. 후원금은 어린이들

을 위한 성탄선물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성탄파티에 사용되며 선물은 크리스마스에 전달될 예정이다. 한편,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사회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산타원정대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억 9800만원을 전달했다. /김민석 기자 mskim@

한국섬진흥원, 목포·신안 취약계층에 생필품 전달



한국섬진흥원(KIDI)은 지난 19일 연말을 맞아 목포 공생원과 신안 압해도 보육원 등을 찾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위문활동을 펼쳤다. <한국섬진흥원 제공>

파이프로 최송 이사, '한국농공단지 40주년' 산자부 장관상

(주)파이프로 최송 이사는 지난 19일 천안 상록리 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'한국농공단지 40주년 도약의 날'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. <사진> 함평농공단지협의회 간사를 맡은 최 이사는 전남 농공단지 발전과 기업혁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수상했다. 최송 이사는 "함평농공단지협의회와의 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"며 "파이프로 역시 품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로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스마트화와 안전, 환경,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"고 말했다. /양재희 기자 heestory@kwangju.co.kr



생활 게시판

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. opinion@kwangju.co.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TEL 062-220-0631 FAX 062-222-4918

화촉

- ▲박희현(전 광주일보 차장)·최애란씨 장남 현종(권슈머인사이트 연구부장) 군, 이달순·유기윤씨 장녀 상미양=28일(토) 오후 12시40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 13층 오스카홀. 032-556-0880.
- ▲신양호·박미자씨 장남 범수군, 이시수(광남일보 전무)·구영서씨 장녀 은서양=28일(토) 오후 12시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. 062-610-7000.
- ▲노성일·이호영씨 차남 진성(광주 동구의회 부의장) 군, 한성군·남금자씨 장녀 성숙양=28일(토) 오후 5시 30분 광주 서구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. 062-364-1234.

알림

▲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=기초생활수급자, 조손가정, 저소득층, 영세민, 교도

- 소 복역자,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-6444-8572.
- ▲광주시·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=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자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-9512.
- ▲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'허그일자리'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=취업상담, 직업훈련, 일자리알선,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, 숙식제공,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-513-9936.
- ▲청소년전화 062-1388=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.
- ▲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=가정 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상담. 국번없이 1366.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-1366.
- ▲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,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, 노인학대 신고-연계등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, 노인학대를 목

- 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, 24시간 전화상담 1577-1389.
- ▲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&주간프로그램 운영=알코올, 인터넷, 도박,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-526-3370.
- ▲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=정신건강&중독 무료상담(음주·우울·불안·스트레스·치매·인터넷)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-526-3370.
- ▲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=중독문제(알코올, 니코틴, 인터넷, 약물, 도박)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,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-413-1195.
- ▲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=마음건강주치의운영=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통한 중독·자살·우울 문제 등 매주 수·금요일 오후 2시~5시 무료상담 062-654-3802.
- ▲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=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

- 모집 주 3일(월·수·금)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. 영어, 심리상담, 생애설계, 노래, 댄스, 명심보감 등 진행. 062-223-1357.
- ▲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서비스=기초생활 수급자, 조손가정, 무의탁 독거노인, 저소득층, 장애인(3급 이상)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,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-369-4009.
- 모집 ▲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=부모 사망, 이혼, 실직, 가출,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-351-1206.
- ▲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=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, 5-6명 이면 개강,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, 플랫폼창업동호회 062-511-0030.
- ▲신창동 보은사 목련향당 단원모집=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,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,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-4622-7838.
- ▲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=15세 이상 장애인 대상.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. 교육기간 1년. 교육비 무료. 훈련수당 지급.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-320-7024.
- ▲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=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, 만 13세 이상 가능,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-232-4953.
- ▲꿈을 돕는 사람들(광주학당)=한글, 기초반, 초등반, 중등반, 영어기초반, 한문, 컴퓨터 등 수시모집(무료강의), 서방시장 안국 관리사무소 옆 062-512-5788, 062-232-1542.
- ▲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=한문서예·문인화·한글서예 동아리 '서사모' 2005년도 창립, 매주 화요일 4-6시, 회비 무료 010-3636-6410